

전문가에게 듣는다

기업 표준화 분야 **박준호** 상무(삼성전자)



기업의 국제표준화 선도는 시장을 선점

삼 성전자는 전세계 정보통신 관련 기술 선도 및 특허 선점 등을 통한 로열티의 수입 확보 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정보통신 총괄 통신연구소에서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2007년 표준화 활동 성과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은 와이브로(WiBro)의 국제표준화이다. 와이브로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향후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4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술 선도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 통신연구소의 박준호 상무는 이러한 와이브로의 국제표준화를 초기부터 진두 지휘해 온 인물이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 박준호 상무는 2008년 1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박준호 상무에게 와이브로 표준화 성과 및 전략적인 시사점, 앞으로의 과제, 표준화 활동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여러 이득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Q 2007년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의 최고 성과는 와이브로의 국제표준화일 것입니다. 와이브로의 국제표준화 의미와 전략적인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A 와이브로의 성공은 민관 협력의 커다란 성공 사례로 봅니다. 우선 정부에서 사업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업계에서 이를 믿고 실행해 성공했습니다. 사업자, 제조사, 국책연구소, 학계 등 많은 분야에서 참여해 적극적인 공을 들였는데, 이는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힘들이 국제표준화 노력에서 함께 뭉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업체 대표는 한국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델이며, 이스라엘 정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Q 이번 표준화에서는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 진영의 와이브로 표준화 저지 시도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브로가 이런 것을 극복하고 표준화를 성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와이브로가 국제표준화를 다지는 과정에서 넓은 지지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와이브로가 CDMA 방식의 기존 3G 기술보다 우수한 기술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지지를 토대로 일부 특정 국가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성공했습니다.

Q 와이브로는 이제 국제표준화를 이뤘습니다. 이 표준을 바탕으로 기업 및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우선 국가 입장에서 큰 수확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의 리더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심어준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IT 강국으로 이미지를 굳혀온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IT 강국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시장 선점'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숙원이었던 미국 본토 진출 등 기념비적인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삼성전자는 통신, 가전 등 다양한 부문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표준화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A 기업이 국제표준을 리드하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특허를 획득해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로열티를 절감하고, 기타 특허 분쟁에서도 우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목표는 시장 선점일 것입니다. 즉 기업이 미리 준비한 기술을 바탕으로 표준화에 성공하면 시장 선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는 곧 사업 성공의 주 요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에서의 확실한 리더십은 사업자들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주며, 따라서 관심 있는 사업자와 활발한 기술 및 사업 논의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 마케팅(Pre-marketing) 효과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화는 TTA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중심이 된 영역으로 표준화가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표준화 활동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A 기업과 정부기관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장단점을 떠나 필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 혹은 평소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시면서 정부와 기업에 제안하고 싶었던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을 보면 정부에서 참여하는 표준 인력의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큼니다. 물론 크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좀더 많은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정부의 표준 참여 인력을 늘려 전문성 및 리더십을 쌓아가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표준을 좀더 전문직종화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실력을 쌓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똘똘 뭉치면 IT 강국의 위상도 높이고 특허 강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